

# 老舍의 《抓藥》 서사에 담긴 함의\*

김수진\*\*

## <목 차>

1. 들어가며
2. 당시 문단 상황의 투영과 작가적 고민
3. 우연에 의한 비극적 희생
4. 피와 죽음을 주요 수사로 삼은 희劇
5. 나오며

## 1. 들어가며

老舍의 단편소설 《抓藥》은 1934년 5월 《現代》 제5권 제1기에 실린 이후, 老舍의 사후에 4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1982년 3월 《老舍小說集外集》, 《老舍文集》 제9권에 실려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老舍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들을 동년 8월에 출판한 단편소설집 《趕集》이나 이듬해 1935년 8월에 출판한 《櫻海集》에 실었지만 이 작품만은 예외였다.<sup>1)</sup>

老舍가 소설 《抓藥》을 자신이 직접 선별한 작품들을 실었던 단편소설집 《趕集》이나 《櫻海集》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문단의 분위기와 혹평들로 인해 작가 자신 역시 이 작품에 대해 저평가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하지만 老舍의 자기부정 역시 대부분 자기 보호<sup>2)</sup>의 의미임을 간과해서

\*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誠信女子大學校 中國語文·文化學科 副教授(jinsz@sungshin.ac.kr)

1) 舒濟, 《老舍文學詞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0, 15쪽 참고.

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老舍가 비슷한 시기에 창작한 《猫城記》 등의 소설이 최근 새롭게 조명되면서 작품성을 재평가 받고 있는데 비해, 아쉽게도 《抓藥》는 여전히 老舍의 자기 평가에 얽매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抓藥》는 《黑白李》 등과 더불어 이 시기 老舍가 단편소설을 창작하면서 시도해오던 실험성 짙은 새로운 문체가 돋보이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老舍의 단편소설은 서술자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1인칭 ‘나’로 서술을 전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3인칭 ‘그’ 혹은 직접적으로 인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주관적이지 않은 담담하고 객관적인 관조의 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1인칭이나 3인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인물과 사물의 의미에 대해 깊이 관통하는 ‘관념형 서술자’가 서술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抓藥》는 직접적으로 인물의 이름을 지칭하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차분히 서술하는 관조의 방식, 즉 두 번째 방식에 속한다.<sup>3)</sup>

또한, 老舍는 단편소설을 창작할 때 다음의 기법을 자주 사용했다. 하나의 대상을 세심하게 선택하여 그것을 서술의 중심 위치에 놓고 그것과 각종 인물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그들의 행위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趕集》에 실린 단편소설 가운데 《眼鏡》은 이러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오래된 근시용 안경을 중간 위치에 두고 각기 다른 유형의 3인의 인물들을 연결시켰다. 《末一塊錢》과 《一筒炮臺烟》도 이러한 방식을 성공적으로 차용한 작품이다. 이러한 기법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개방식이며, 작가는 몇 페이지로 이어지는 지면을 할애하여 매우 생동감 있고 사실적

2) 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6年第1期, 130쪽.

3) 徐德明, 孫華幸, <老舍小說的敘述學價值>, 崔恩卿, 高玉琨 主編, 《走近老舍》, 京華出版社, 2002, 139쪽 참고. 《抓藥》 외에도 《老字號》, 《斷魂槍》, 《新時代的舊悲劇》, 《也是三角》, 《上任》, 《末一塊錢》, 《老年的浪漫》, 《同盟》, 《抱孫》, 《眼鏡》, 《隣居們》, 《“火”車》, 《殺狗》, 《一塊猪肝》, 《人同此心》, 《一筒炮臺烟》, 《他的失敗》, 《小鈴兒》, 《旅行》, 《有聲電影》, 《生滅》, 《丁》, 《牛老爺的痰盂》, 《電話》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인 인물을 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抓藥》에서도 이러한 서술 방식을 작품 서사 전개에 응용하여 喜劇의 틀을 구성하였다.<sup>4)</sup> 《抓藥》에서는 ‘붉은 색 표지의 책’이라는 매개물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 생면부지의 관계인 세 인물을 등장시킨다. 즉, 책 한 권을 연결고리로 하여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왔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평범한 농민 牛二頭, 비평가 靑燕과 작가 汝殷 이 세 인물의 서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5)</sup>

老舍의 단편소설 《抓藥》은 이러한 독특한 서사 구조와 서술 기법 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 왔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설 《抓藥》 서사에 내재된 의미와 작품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 2. 당시 문단 상황의 투영과 작가적 고민

소설 《抓藥》 속 작가 汝殷에게는 당시 문단에서 작가로서의 고민이 가득했던 老舍의 이미지가 녹아있다. 汝殷에게 씌워진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기 만한 ‘의식 부정확’이라는 비평의 굴레는 당시 현실 속의 작가 老舍에게도 동일하게 씌워져 있었다.

4) 保爾·巴迪 著, 吳永平 譯, <論老舍的短篇小說藝術>, 《文藝理論與批評》 2018年第1期, 56쪽.

5) 老舍는 1936年 《宇宙風》 第8期에 발표한 <我怎樣寫短篇小說>라는 글을 통해 《抓藥》와 같은 작품의 구상 과정에 대해 ‘우선 의미를 생각하고 나중에 인물을 만든다. 그래서 인물의 모든 것은 다 범위와 궤도가 있고 그들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先想到意思, 而後造人, 所以人物的一切都有了範圍和軌道: 他們鬧不出圈兒去.”(老舍, <我怎樣寫短篇小說>, 《老舍文集》 第15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197쪽))’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汝殷도 때로는 악의적으로 생각한다. ‘青燕’이라는 이 필명을 보아하니 아마도 그저 鴛鴦胡蝶派의 줄개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방법을 바꿔서 오로지 ‘의식 부정확’이라고만 말하니, 그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소극적인 자기 위안은 결국 적극적인 공격보다 못한 법. 의식 부정확이라는 포탄은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 날아다닌다.<sup>6)</sup>

‘의식 부정확’이라는 비평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汝殷로서는 비평가가 원하는 방향인 ‘의식이 정확’한 글을 쓰기 위한 방법과 대책을 세우기에도 애매한 것이다.

의식은 어떻게 정확해지나? 그는 青燕의 비평 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青燕은 여기서는 소크라테스를 별로 닮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좋아하고 또한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다.…… 青燕은 그저 100미터 결승점에서 걸음이 느린 자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다.<sup>7)</sup>

주지하듯이 老舍는 5.4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제반봉건의 5.4운동의 기본 사상에 반대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청년들이 드러내는 표현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老舍는 작품 창작 활동을 통해 이러한 면을 풍자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창작 태도는 老舍의 작가활동 전반기의 일관된 논조이기도 했다.<sup>8)</sup>

그래서 老舍는 이 시기 단편소설 《抓藥》 속에서 역시 혁명문학과 혁명문학측 비평가들을 풍자적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소설 속의 汝殷은 좌파에 속하지 않는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해 의식 부정확이라고 한 좌파 비평가

6) 自然, 汝殷也有時候惡意的想到: 就“青燕”這個筆名看, 大概不過是個蝴蝶鴛鴦派的小卒. 如今改了門路, 專說“意識不正確”. 不必理他. 可是消極的自慰終勝不過積極的進攻; 意識不正確的炮彈還是在他的頭上飛.(老舍, 《抓藥》, 《老舍文集》第9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285쪽)

7) 意識怎麼就正確了呢? 他從青燕的批評文字中找不到答案. 青燕在這裏不大象蘇格拉底了. 蘇格拉底好問, 也預備著答. …… 青燕只會在百米終點, 揪住腿慢的揍嘴巴.(老舍, 《抓藥》, 285쪽)

8) 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122쪽 참고.

靑燕의 비평에 대해, 이러한 비평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제대로 맞서볼 수도 없는 약자의 입장이다.<sup>9)</sup> 소설 《抓藥》의 서사를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老舍의 좌익 혁명문학에 대한 평가와 좌파 진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당시 문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하겠다.

1930년대 전후 중국의 사회현실은 매우 암울했다. 1929년 국민당은 '訓政'<sup>10)</sup>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민주권이 박탈되었다. 胡適 등 자유주의자들은 인 권운동을 발기하여 폭로와 항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新月》잡지는 폐간되었고 羅隆基가 체포되었으며 胡適은 '반혁명'으로 성토되었다. 1930년 2월 魯迅은 '中國自由運動大同盟'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민당 浙江省 黨部에 의해 '타락문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험악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자유파 작가들은 공포를 느꼈으며 정치 사회 운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의 정치, 경제, 외교 방면에서의 제반 정책들은 모두 老舍를 몹시 실망시켰다. 老舍는 집권당으로서의 국민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猫城記》를 창작할 때 老舍는 공산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다. 여기에는 어쨌든 당시의 이른바 주류 이데올로기가 지정한 불법 정당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초기에는 서구의 혁명이론을 중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파 작가들은 공산당과 그들이 영도하는 좌익문예운동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老舍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抓藥》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앞서 1932년 발표한 《猫城記》는 당시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으로 老舍가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낸 공산당, 홍군 등에 대한 견해가 불려온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sup>11)</sup>

9) 급기야 汝殷은 예전에 의식이 정확하다고 평가되었던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만, 어떤 책은 이미 판매가 금지되었고 평범한 로맨스 작품이라는 점에 실망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이런 작품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나중에는 자신도 이런 류의 소설을 창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된다.

10) 訓政時期: 孫文이 건국 大綱에서 정했던 혁명 완성의 제2과정, 즉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인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한 자치 훈련 시기.

《貓城記》에서 老舍는 중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써내려갔다. 국민성, 인성에서부터 정치, 군사, 외교,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했으며, 老舍가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서 정치성과 정론성이 가장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자로서 老舍는 자신의 애국적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작품을 통해 여지없이 비판했다.<sup>12)</sup>

혁명문학이 막 등장하여 한창 극성기를 이루던 시기에 老舍는 중국 사회에 대량으로 유입된 현대사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소설을 통해 중국 사회가 각종 사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나타난 폐단을 강조하면서 이를 회화하였다. 老舍식 표현에 의하면 이는 곧 '새로운 인물의 가려운 곳을 살짝 긁는'<sup>13)</sup>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창작 태도는

- 
- 11) 陳紅旗, <都市體驗, 革命敘事與老舍的文化選擇>, 《民族文學研究》, 2012年6期, 33쪽; 吳永平, <老舍小說《抓藥》新解 — 文本細讀與文化社會學分析>, 《鹽城師範學院學報》第24卷第2期, 2004年5月, 70쪽; 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128쪽.
- 그래서 老舍는 《貓城記》에서 공산당과 좌익문예운동에 대해 풍자했다. 하지만 老舍의 공산당에 대한 반대 입장은 결코 격렬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한 비판의 포커스는 사회 비판과 국민 劣根性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胡風 등의 '左聯' 친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내적 고민과 모순 역시 많아졌다. 그래서 그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정치 입장을 지키고 싶어 했고 '좌익' 친구들이 전해준 사상 관념을 인정했으며 그는 小蠅의 입을 빌어 '大家夫斯基의 정치주장인 -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정치주의" - '확실히 나쁘지 않은' 관념을 드러내기도 했다.(陳紅旗, <都市體驗, 革命敘事與老舍的文化選擇>, 33쪽)
- 12) 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129쪽. 《貓城記》에 대한 老舍 자신의 평가 전후로 그의 생각의 변화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我怎樣寫《貓城記》>라는 글을 쓸 때 그의 견해는 바뀌어 있었는데, 그는 《貓城記》는 실패한 작품으로 그 원인은 유머스럽지 않은 점과 적극적인 주장이 없고 국가의 활로를 알려주지 않은 점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품의 예술성에 치중하기보다는 老舍는 이 소설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 현실과 정치를 분석·비판했고 중국의 미래와 운명에 관심을 두었다. 애국자로서의 老舍의 역할이 예술가로서의 老舍의 역할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貓城記》가 애국적 동기에서 창작되었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작품에 대한 비난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술한 정치적 태도와는 상반되게 老舍는 사회주의에 대해 줄곧 긍정적이었다는 점이다. 《駱駝祥子》에서의 曹先生은 차장 사회주의자로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지식인 인물이다. 또한 《貓城記》에서 老舍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老舍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사회주의의 실천을 구분해서 대하고 평가했음을 알려준다.(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129-131쪽 참고)
- 13) 輕搖新人物的痒痒肉! (老舍, <我怎樣寫《趙子曰》>, 《老舍文集》第15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171쪽)

형식면에서도 혁명문학과는 이질적인 면을 드러냈으며 혁명문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풍자적 표현 방식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하지만, 《趙子曰》의 李景純, 《離婚》의 李 선생, 《黑白李》의 黑李, 《小坡的生日》의 小坡 등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老舍는 결코 혁명서사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老舍 작품에서 혁명을 한 청년 혹은 혁명적 분위기를 띤 청년들 대부분은 부정적 인물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 만주족 출신으로서 老舍는 신해혁명을 포함한 모든 사회 혁명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장기간 혁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몸소 겪은 사회 하층민 신분의 가난한 생활 등의 경험 등은 老舍가 장기간 혁명에서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sup>15)</sup>

老舍는 《趙子曰》에서 李景純을 통해 “혁명 사업을 할 계획이면 각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은행 업무를 배우는 사람은 잘 배운 후에 경제 방면에서 사회를 개량할 수 있고 상업을 배우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면 상업계에서 혁명의 이상을 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 다른 모든 직업의 사람들은 저마다 충분한 지식이 있고 죽기 살기로 한 후라야 비로소 진짜 혁명이 출현하게 된다. 각자가 걷는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 사회를 개량하고 국민을 교도하여 국민이 각성하면 혁명 성공의 그날인 것이다.”라고 혁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sup>16)</sup> 이는 당시 老舍가

14) 馬海, <老舍小說與中國現代“革命”文學>, 《涪陵師範大學學報》第22卷 第1期, 2006年1月, 46쪽 참고.

15) 陳紅旗, <都市體驗, 革命敘事與老舍的文化選擇>, 31쪽; 關紀新, 《老舍與滿族文化》, 民族出版社, 2005, 33쪽; 吳小美, 高世倉, <老舍與中國革命論綱>, 《文學評論》, 2004年 第2期, 88쪽.

16) 陳紅旗, <都市體驗, 革命敘事與老舍的文化選擇>, 32쪽 참고.  
學銀行的學好之后, 便能從經濟方面改良社會. 學商業的有了專門知識便能在商界運用革命的理想. 同樣, 教書的, 開工廠的, 和作其他的一切職業的, 人人有充分的知識, 破出命死干, 然後才有真革命出現. 各人走的路不同, 而目的是一樣, 是改善社會, 是教導國民; 國民覺悟了, 便是革命成功的那一天.(老舍, 《趙子曰》, 306쪽)

혁명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老舍가 고민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은 대부분 좌익 혁명문학의 편협하고 과격함 점, 그리고 문학에서의 예술적 지향에 어긋나는 점이었던 것이다.

### 3. 우연에 의한 비극적 희생

《抓藥》에서 齊化門 밖 十里鋪 마을에 사는 평범한 농민 牛二頭는 부친의 병을 낫게 해 줄 약을 구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몸수색을 당하면서 그의 우연한 비극은 시작된다.

일본군이 齊化門 밖에서 사격을 해오자 순경들은 오가는 중국인들을 검문 수색하는 과정에서 二頭 역시 검문수색을 당하게 된 것이다.

牛씨네 二頭의 숨저고리에 달린 크고 작은 단추는 모두 채우지 않고 그저 파란색 요대로 느슨하게 묶어 놓았고 목 아래 살이 흰히 드러나 있었다. 이렇게 그는 초조해하며 급한 마음에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부친의 병은 분명 가볍지 않았다. 1위안 남짓한 돈으로 산 이 약! 집까지는 齊化門에서 아직 십 리 정도 남았다. 齊化門이 바로 눈앞이라 성을 나서서 지름길로 가면 아마도 해가 지기 전에는 初湯을 드시게 할 수 있으리라. 그는 발바닥에 더욱 힘을 주었으며 한 손에는 약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책을 쥐고 있었다.<sup>17)</sup>

추운 겨울, 병든 부친에게 한시라도 빨리 드리기를 위해 약봉지를 들고 귀가를 서두르던 二頭. 줄 선 사람들 행렬은 세 무리로 나뉘었는데 비단 옷을 입은 첫

17) 牛家二頭의大小棉襖의鈕子都沒扣著，只用藍布搭包松松的攏住，脖子下面的肉露著一大塊，饒這麼著，他還走的發燥呢。一來是走的猛，二來也是心裏透著急。父親的病一定是不輕；一塊多錢，這劑藥！家離齊化門還有小十里子呢。齊化門就在眼前了，出了城，抄小道走，也許在太陽壓山以前能把“頭煎”吃下去。他腳底下更加了勁，一手提著藥包，一手攥著個書卷。(老舍, 《抓藥》, 281쪽)

번째 조는 검문 수색이 빨리 끝났지만 두 번째 조부터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가 속한 조의 차례가 돌아온다.

금방 끝날 것 같던 검문 수색은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체되었고 二頭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이 원인이 되어 그는 집으로 귀가하기 어렵게 된다. 주임순 경에게 아들인 자신이 약을 가져오길 병석의 부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마을에 약방이 없어서 시내로 굳이 약을 사러 온 것이냐는 의심을 받고 마을의 의사가 懷德堂 약재가 질이 좋으니 사오라고 했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二頭는 파출소에서 심문을 받고 그날 저녁 公安局으로 호송되어 간다.

소설의 서사는 그날 저녁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갑작스럽게 장면 전환을 하면서, 비평가 靑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두 번째 플롯이 전개된다. 그리고는 첫 번째 플롯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리고는 첫 번째 플롯인 감옥에 갇힌 二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

二頭는 감옥에 수감된 지 이틀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스물 살의 二頭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책을 받아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 그가 책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처럼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그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에게 해가 되는 유언비어를 차마 날조하지 못하는 도덕적이고 선량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장씨네 二狗 혹은 이씨네 黑子が 그에게 주었다고 말이다. 그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좋은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이름 같은 이름이래봤자 그저 마을 대표 孟占元이었다.…… 그 책! 그 책! ‘유괴범’의 미혼탕 처방전이라도 된단 말인가?<sup>18)</sup>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진다.

18) ……說：張家的二狗，或李家的黑子給他的。他不肯那樣瞞心眼，誣賴好人。至於名字象個名字的，只有村裏的會頭孟占元。……那本書！那本書！是不是“拍花子”的迷魂藥方子呢？（老舍，《抓藥》，287쪽）

또 하루가 지났다! 아버지는 분명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도 못 사고 아들도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는 분명 돌아가셨다. 二頭는 머리를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sup>19)</sup>

시간이 다시 경과하여 저녁이 되자 감옥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온다. 단정한 차림새에 족쇄를 찬, 한눈에 보기에 '배운 티'가 나는 젊은이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른다.

나중에 들어온 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소송건인가요?"

"책 한 권을 주웠어요. 빌어먹을 책을요!"

"무슨 책인데요?" 젊은이의 눈동자색이 다소 짙어졌다.

"붉은 표지 책이요!"

둘은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二頭가 물었다.

"당신은, 당신은 무슨 소송건으로 들어온 건가요?"

"저는 책을 하나 썼어요." 젊은이가 웃었다.

"아, 당신이 그 浪書를 쓴 건가요, 당신이?"

.....

"그 책은 당신들을 위해 쓴 거죠." 젊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二頭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못된 것 같으니." 그는 그럼에도 손찌검을 하지는 않았다.<sup>20)</sup>

순박한 二頭는 汝殷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 汝殷의 외모나, 차림새

19) 又過了一天! 他想, 爸爸一定是死了! 藥沒抓來, 兒子也不見了, ..... 爸爸一定是死了, 二頭抱著腦袋落淚, 慢慢的不由自己的哭出聲來。(老舍, 《抓藥》, 287-288쪽)

20) 後來的先說了話: "甚麼案子, 老鄉親?" 撿了一本書, 我操書的祖宗!" 二頭吐了一口惡氣. "甚麼書?" 青年的眼珠黑了些. "紅皮的!" 二頭只記得這個, "我不認識字!" "嘔!" 青年點了點頭. 都不言語了. 待了好久, 二頭爲是透著和氣, 問: "你, 你甚麼案——案子?" "我寫了一本書, "少年笑了笑. "啊, 你寫的那本浪書, 你?" 二頭的心中不記得一個剛會寫書的人, 這個人既會寫書, 當然便是寫那本紅皮書的人了. 他不能決定怎麼辦好. 他想打這個寫書的幾個嘴巴, 可是他知道這里巡警很多; 已經遭了官司, 不要再禍上添禍, 不打他吧, 心中又不能出氣. "沒事兒, 手閒得很痒痒, 寫他媽的浪書!" 他瞪著那個人, 咬著牙. "那是爲你們寫的呢," 青年淘氣的一笑, 二頭真壓不住火了: "揍你個狗東西!" 他可是還沒肯動手。(老舍, 《抓藥》, 288-289쪽)  
吳永平은 특히 노동자와 농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위해 창작된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당시 혁명문학의 치명적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에 주목한 바 있다. (吳永平, <老舍小說《抓藥》新解 — 文本細讀與文化社會學分析>, 72쪽 참고)

는 발에 차고 있는 족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으며, 핏기라고는 없는 창백한 얼굴에, 고운 피부에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눈빛이었다. 二頭로서는 초면임에도 자신이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꿰뚫어보는 그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존재로 느끼며 긴장한다.

“그 책을 어디서 주운 거죠?”

“뒷간에서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뭘 물었나요?” ……

“우선 나에게 말해요, 어디서 주운 거요?”

“東四牌樓 남쪽의 쟈장할 그 오줌싸는 데!” 二頭는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묘사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멍해질 뿐이었다. 마치 그해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광경을 뻘히 보고 있는 것 같았다.<sup>21)</sup>

‘메뚜기가 자신이 피 땀 흘려 키운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광경’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심경의 비유를 통해 老舍는 二頭의 현재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다시 며칠 시간이 경과했다고 서술하면서, 二頭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작별을 이야기한다. 소설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젊은이’라는 말 대신 처음으로 ‘汝殷’으로 그를 칭하며 첫 번째 플롯이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는 농민 二頭와 지식인 汝殷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음을 암시해준다.

소설 《抓藥》에서 천신만고 끝에 二頭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부친의 장례를 치른 지 이미 이틀이나 지난 뒤였다. 二頭는 다시는 약을 사러 시내로

21) 少年自己微笑了半天, 才看了二頭一眼。“你不認識字?” 二頭愣了會兒, 本想不回答, 可是到底哼了一聲。“在哪裏撿的那本書?” “茅廁裏; 怎著?” “他們問你甚麼來著?” …… 先告訴我, 在哪兒撿的?” “東四牌樓南邊, 媽的這泡屎撒的!” 二頭忽然感覺到一種說不出來的難過。他想不出一句合適的話來形容它, 只覺得心中一陣茫然, 正象那年眼看著蝗虫把谷子吃光那個情景。(老舍, 《抓藥》, 289-290쪽)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연한 일로 야기된 이러한 비극적인 희생은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기에 무기력하고 더욱 절망적인 것이다.

#### 4. 피와 죽음을 주요 수사로 삼은 喜劇

창조자인 汝殷과 비평가 靑燕은 원수이다. 비록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없다해도 말이다. 汝殷은 소설을 써서 생계를 꾸려가고 靑燕은 비평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잡지나 신문에는 늘 汝殷이 앞에 가고 靑燕이 뒤에서 쫓는 격이다. 汝殷이 무엇을 쓰든지 간에 靑燕은 늘 그에게 한 방 먹인다. 의식의 부정확으로, 汝殷의 작품은 이로 인해 판매부수에 영향 받지 않는다 해도 정신적인 승리자는 靑燕이라고 그는 생각한다.<sup>22)</sup>

작가 汝殷은 원고료나 인세를 받을 때면 늘 비평가 靑燕이 어디에선가 남몰래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하하, 또 돈이 좀 들어왔네? 그건 내 비평의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지! 기다려, 난 아직 당신을 넘어뜨리지 않았어!”<sup>23)</sup>라는 靑燕의 말을 상상하며 汝殷은 靑燕의 우월감과 비평가로서의 힘 과시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낀다.

공교롭게도 한번은 그들 둘의 사진이 바싹 붙어서 하나의 잡지에 실렸다. 汝殷의 상상력은 더욱 풍부해졌다. 사진의 靑燕은 머리가 가분수에 장발이고 금붕어처럼 튀어 나온 눈에 삼살개 코를 하고 있었다. 좋게 말해서 소크라테스와 매우 흡사했다. 이 소크라테스는 늘 소리 없이 몰래 汝殷을 방문한다.<sup>24)</sup>

22) 創造家“汝殷”和批評家“靑燕”是仇人，雖然二人沒見過面。汝殷以寫小說甚麼的掙飯吃，靑燕拿批評作職業。在雜誌上報紙上老是汝殷前面走，靑燕后面緊跟。無論汝殷寫甚麼，靑燕老給他當頭一炮——意識不正確。汝殷的作品雖并不因此少賣，可是他覺得精神的勝利到底是靑燕的。(老舍，《抓藥》，284쪽)

23) “哈，又進了點錢？那是我的批評下的漏網之魚！你等著，我還沒跟你拉倒了呢！”(老舍，《抓藥》，284쪽)

老舍는 작중 인물 汝殷의 입장이 되어 靑燕을 반어적으로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며 그를 유머러스하게 회화화하고 있다. 그가 글을 발표하고 나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靑燕의 비평은 늘 ‘의식 부정확’이라는 평가였다.

그는 자세히 자신의 것과 이른바 正宗이라는 그 작품들을 비교해보았다. 그는 그의 언어와 그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의 언어는 국어이고 그들의 언어는 외국어였다. 그의 이야기 역시 그들의 이야기와는 달랐다. 그는 관찰해낸 빛과 그림자, 열정과 저속함, 이상과 감정을 표현했고 그들의 언어는 그저 ‘괴’, ‘죽음’을 주요 수사로 삼은 희극이다.<sup>25)</sup>

‘의식 부정확’이라는 한결같은 靑燕의 무심하고 성의 없는 비평은 작가인 그에게 있어서 피비린내와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질 만큼 치명적인 일종의 폭력이었다. 그래서 靑燕의 비평에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汝殷은 아예 작정을 하고 비평가의 취향에 맞춘 글을 쓰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농담을 해서 靑燕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는 비슷하게 대충 모방했다. 외국화된 문자를 사용했고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편집해서는 잡지에 보냈다. 이상하게도 이 글은 오래지 않아 돌아왔다. 편집자가 매우 예의바르게 편지를 동봉해서.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라서 흥, 황, 남, 백, 흑색의 이런 글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합니다. 귀하께서 이번엔 사용하신 글자는 거의 다 이런 류의 ……” 汝殷은 웃느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 보니 이런 것이었구나! 글이란 정말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작가, 독자, 비평가, 검열자들은 모두 한 절에서 배출된 것이다!<sup>26)</sup>

24) 可巧有一回，他們倆的相片登印在一家刊物上，緊挨著，汝殷的想象更豐富了些，相片上的靑燕是個大腦袋，長頭髮，龍睛魚眼，哈巴狗鼻子；往好裏說，頗象蘇格拉底。這位蘇格拉底常常無影無聲的拜訪汝殷來。(老舍，〈抓藥〉，284-285쪽)

25) 他細細把自己的與那些所謂正宗的作品比較了一下，他看出來：他的言語和他們的不同，他是國語，他們的是外國話。他的故事也與他們不一樣，他表現了觀察到的光與影，熱誠與卑劣，理想與感情；他們的只是以“血”，“死”，爲主要修辭的喜劇。(老舍，〈抓藥〉，285쪽)

26) 他要開玩笑了，專爲堵靑燕的嘴。他照貓畫虎的，也用外國化的文字，也編些有聲而不近於真實的故事，寄給一些刊物。奇怪的是，這些篇東西不久就都退回來了；有一篇附著編輯人的很客氣的信：“在言論不自由的時期，紅黃藍白黑這些字中總有著會使我們見不著明天的，你這次所用的字差不多都是這類的……”汝殷笑得連嘴都閉不上了。原來如此！文字真是會騙人的東西的。寫家，讀者，批評者，檢查者，都是一個廟裏排出來的！(老舍，〈抓藥〉，285-286쪽)

汝殷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편집자의 편지 내용에 실소를 터트리며 허망해한다.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 역시 짐작하는 바가 있었는데, 의식 부정확이라는 비평 이면에는 자신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汝殷은 靑燕에게 보란 듯이 자비를 들여 일찍이 거절당했던 글들을 수록한 작은 문집을 한 권 인쇄해서 보낸다. 그는 靑燕이 이번만큼은 자신의 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우호적인 비평을 하기를 내심 기대하며 기다린다.

하지만 잡지사 편집부로 송달된 편지와 종이 꾸러미를 열어 ‘汝殷 저’라고 쓴 붉은 색의 책을 받아본 靑燕의 반응은 역시나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汝殷이 몹시 불쌍했다. 작가들이란 다들 약간씩은 불쌍한데 편집부의 난관을 뚫어야 하고 그 후에는 비평가의 천둥 같은 비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평가는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연민을 가지면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러 하는 불공평한 처사는 난감한 일이다. 그는 안다. 하지만 성실한 공평함은 더욱 난감하다. 시대적 풍조나 가시가 없으면 비평이 아닌 법! 靑燕은 파리조차도 해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비평을 직업으로 삼아 망나니짓을 하는 것은 대부분 밥벌이를 위해서이다. 그는 다 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다.<sup>27)</sup>

靑燕은 결코 汝殷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적대시할 마음이 없는 인물이다. 그에게 비평은 비평일 뿐이었으며 그가 ‘의식 부정확’보다 더 참신한 어구를 찾았다면 그는 일찌감치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이 어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의식 부정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27) 靑燕到雜誌社編輯部去，看看有甚麼“話”沒有。他的桌上有三封信，一個紙包。把信看完，打開了紙包，一本紅皮的書——汝殷著。他笑了。他很可憐汝殷。作家多少都有些可憐——闖過了編輯部的難關，而後還得挨批評者的雷。但是批評者不能，絕對不能，因為憐憫而丟掉自家的地位。故意的不公平是難堪的事，他曉得；可是真誠的公平是更難堪的：風氣，不帶刺兒的不算批評文字！靑燕是個連着蠅都不肯傷害的人。但是他拿批評為業，當劊子手的多半是為吃飯呀。他都明白，可是他得裝糊塗。(老舍，《抓藥》，286쪽)

靑燕은 한 순간 汝殷을 한번 만나서 속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관계라는 생각도 들어, 만나지 않더라도 위험하니 서둘러서 이 ‘붉은 표지 책’을 회수해 가라는 편지라도 써서 보낼까 하고 망설인다.

東四牌樓 남쪽에 가자 그는 뒷간에 갔다. 숨저고리를 끌어올리기 편하도록 책을 발판 위에다 놓아두었다. 그는 뒷간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바깥에 또 한 사람이 왔다. 그는 급히 자리를 양보하고는 옷을 수습하고 숨을 죽이며 바깥으로 나갔다. 한참을 가다가 그는 그 책이 떠올랐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찾아오고 싶지는 않았다. 책이 없어도 그는 비평을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책 제목과 작가를 기억했다.<sup>28)</sup>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靑燕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집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汝殷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린다.

그래도 비평을 해야만 한다. 단지 짧은 한 토막만 쓸 수 있는데, 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비평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범위는 물론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의 제본과 표지에 대해 비평가는 자유롭게 심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붉은 색의 책표지는 이야기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다. 汝殷의 이번 잔피는 실망스럽다. 그는 그저 붉은 종이, 두껍고 반드르르 광이 나는 붉은 종이를 사용했을 뿐이지 내용은, 내용은 여전히 무슨 정확한 의식이라고는 없다!’ 그는 이렇게 써내려갔다. 뜻밖에도 7,8백자를 끌어 모을 수 있었고 구절마다 수사에 있어서 약간의 권위적인 힘을 드러냈다. 비평 역시 문예가 되어야 한다. 그는 상당히 정확한 자신의 글재주 - 생각한 것 보다 매서운 자신의 글에 매우 만족했다. 글이 자신의 지위를 보증해 주고 있었다. 그는 汝殷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느끼기는 해도 그저 미안해하는 수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언젠가 그는 汝殷을 만나면 몇 마디 말로 모든 것을 해명할 것이다. 작가가 만약 비현실적인 인물로 즐겁다면, 비평가는 작가로 인해 즐거운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sup>29)</sup>

28) 走到四牌樓南邊，他要出恭，把書放在土台上，好便于撿起棉袍。他正堵住廁所的門立著，外面又來了個人。他急於讓位，擦著衣服，閉著氣，就往外走。走出老遠，他才想起那本書。但是，不願再回去找尋。沒有書，他也能批評，好在他記住了書名與作家。(老舍, 《抓藥》, 287쪽)

그는 원고를 몇 글자 첨삭하고는 부쳐 버렸고 이들이 지나 그의 비평 원고는 잡지에 게재되었다. 다시 이들이 지나자 그의 귀에 汝殷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靑燕은 어차피 ‘문자 사업이란 대체적으로 말하면 한 무더기 허튼 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묘사되었다.<sup>30)</sup> 하지만, 그는 汝殷에게 어떤 개인적 원한이 있어 앙심을 품고 비평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에게 다소 호감이 간다는 이유로 그를 구해줄 생각도 잠시 하는 지극히 단순한 성격의 인물이기도 하다.

靑燕은 이처럼 汝殷의 투옥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즉 靑燕으로 인해 야기된 汝殷의 비극은 그에게는 일종의 희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완성도와 예술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와 대중적인 인기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老舍가 창작한 대부분의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 자신의 저평가의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老舍의 소설 《抓藥》를 작품 서사에 드러난 의미와 작품의 의의를 중심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29) 還是得批評. 只能寫一小段, 因為把書丟了. 批評慣了, 範圍自然會擴張的, 比如說書的裝訂與封面; 批評家是可以自由發表審美的意見的: “假如紅色的書皮可以代表故事的內容, 汝殷君這次的戲法又是使人失望的. 他只會用了張紅紙, 厚而光滑的紅紙, 而內容, 內容, 還是沒有甚麼正確的意識!” 他寫了下去. 沒想到會湊了七八百字, 而且每句, 在修辭上, 都有些表現權威的力量. 批評也得成爲文藝呀. 他很滿意自己筆底下已有了相當的準確——所寫的老比所想的嚴厲, 文字給他的地位保了險. 他覺得很對不起汝殷, 可是只好對不起了. 有朝一日, 他會遇到汝殷, 幾句話就可以解釋一切的. 寫家設若是拿幻擬的人物開心, 批評者是拿寫家開心的, 沒辦法的事! (老舍, 《抓藥》, 290쪽)

30) 關紀新은 작품을 읽지도 않고 작가에게 ‘의식부정확’이라는 명어를 씌워 비평을 가함으로 써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문예비평가 靑燕을 문학계의 ‘건달’에 비유하며, 老舍 작품에 등장하는 위선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로 꼽는다. (關紀新, 《老舍評傳》, 重慶出版社, 1998, 229-230쪽 참고)

《抓藥》에서 ‘붉은 표지의 책’에 붙은서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겪게 되는 평범하고 성실한 작가 汝殷과 순박한 농민 牛二頭의 비극은, 직업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靑燕이라는 필명의 한 비평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喜劇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소설이 지닌 비극성의 절정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

二頭를 비롯한 착실하고 순박한 농민들을 위한 책을 쓴 汝殷의 선한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병석에 드러누운 二頭의 부친에게 제때 약을 전해주지 못하고 급기야 부친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二頭는 오히려 그를 원망하게 된다. 연대적 관계이어야 마땅한 이 두 인물의 관계에는 이처럼 汝殷을 평생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二頭로 인해 뛰어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가 생겨버린다.

비평가 靑燕은 작품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시종 악의를 띠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나 汝殷의 작품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혹평을 가하고 책을 잃어버린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가 초래한 타인의 비극에 대해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전부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 그려졌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좌익 비평가들을 바라보는 老舍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죄도 없이 투옥된 汝殷은 과연 누명을 벗고 감옥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소설은 靑燕이 그를 구해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작가 汝殷에게 老舍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靑燕에게 좌익비평가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老舍가 당시 좌익비평가들에게 가졌던 희망적인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參考文獻 >

- 老舍, 《抓藥》, 《老舍文集》 第9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_\_\_\_, 《趙子曰》, 《老舍文集》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_\_\_\_, <我怎樣寫短篇小說>, 《老舍文集》 第15卷, 人民文學出版社, 1995.  
 關紀新, 《老舍評傳》, 重慶出版社, 1998.

- \_\_\_\_\_, 《老舍與滿族文化》, 民族出版社, 2005.
- 舒濟, 《老舍文學詞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0.
- 崔恩卿, 高玉琨 主編, 《走近老舍》, 京華出版社, 2002.
- 陳紅旗, 《中國現代作家與左翼文學的互動相生》, 東方出版中心, 2016.
- 張清民, 《20世紀30年代的中國文學理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保爾·巴迪 著, 吳永平 譯, <論老舍的短篇小說藝術>, 《文藝理論與批評》2018年第1期.
- 吳永平, <老舍小說《抓藥》新解 — 文本細讀與文化社會學分析>, 《鹽城師範學院學報》第24卷第2期, 2004年5月.
- 吳小美, 古世倉, <老舍與中國革命論綱>, 《文學評論》2004年第2期.
- 馬海, <老舍小說與中國現代“革命”文學>, 《涪陵師範大學學報》2006年第22卷第1期.
- 石興澤, <老舍與中國左翼文學>, 《聊城師範大學學報》1992年第1期.
- 湯晨光, <老舍與革命和政治>,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6年第1期.
- 陳紅旗, <都市體驗, 革命敘事與老舍的文化選擇>, 《民族文學研究》2012年第6期.
- 박진수, 《소설의 텍스트와 시집》, 도서출판 역락, 2018.
- 엄미숙, 《서술기법의 백과사전 올리시즈》, 한신문화사, 1995.
- 게오르크 루카치 저,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 < Abstract >

#### Implications in the Narrative of Laoshe's "ZhuaYao(抓藥)"

Kim, Sujin

Most of Laoshe's works have consistently received high praise and popular popularity in terms of completeness and artistry. In this paper, I tried to re-examin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works revealed in the narrative of Laoshe's novel Zhuyao (抓藥: Buying Chinese medicine), which had not been noticed because of his low evaluation.

The plain and sincere writer Luyin and the stern peasant Ertou suffer

tragedy because of the red cover book. Their tragedy was nothing but ordinary comedy for a critic whose name was Qingyan with no professional ethics. The climax of the novel's tragedy lies at this point.

Luyin's intentions were good when he wrote a book for good and simple farmers, including Ertou. Ironically, however, it did not deliver medicine to the sick father in time. After all, in the tragedy of his father's death, Ertou blames him, contrary to Luyin's intentions. Ertou's relationship with Luyin, which should be in solidarity, creates a clear boundary that cannot be surpassed by Ertou, who regarded Luyin as the object of his life's resentment. Critic Qingyan is portrayed in the work as a figure who is always innocent. However, he is a Immoral person, with only a little bit of sorry for the tragedy of others caused by his carelessness. His image reflects Laoshe's view of the left critics of the time. Will Luyin be in jail without sin and out of prison? The novel ends with an open ending, leaving room for Qingyan to save him.

It can be assumed that Laoshe's own image is projected to Luyin, and that leftist critics are projected to Qingyan. That is to say, Laoshe had a hopeful desire for leftist critics at the time.

Key words: narrative, solidarity, tragedy, comedy, leftist critic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10. 31	2019. 11. 11	2019. 11. 12	2019. 11. 28	2019. 12. 31

